

격변하는 世界情勢와 韓國大學

金 弘 明

(朝鮮大 政治外交學科)

1. 序 言

오늘날 세계정세는 소련 및 동구권의 개혁과 블록해체를 극적인 계기로 하여 심대한 構造的 變動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변환은 비단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1960~70년대에 걸쳐 미국 헤게모니의 상대적 쇠퇴와 일본·EC 등의 경제적 급부상, 제3세계 여러 나라의 정치적 위상의 상승과 경제적 분화 등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것이 최근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맞물려 급기야는 전후 세계질서를 특징지었던 '냉은' 냉전적 兩極 체제의 歷史的 終焉, 곧 그것의 사망선고에 이어졌던 것이다.

소련 및 동구권의 변화는 단순히 국제세력 관계의 재편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하나의 요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의 重義의 의미는 20세기 세계사의 전개에 있어서 世界社會主義 理念과 運動이 담당한 역할과 현실적 영향력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밝혀질 문제이다. 곧 사회주의 이념은 자본제의 모순과 폐해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받아들여졌고, 세계 사회주의운동은 실로 세계를 양분한 가운데 자신이 주도권을 잡은 지역에 그것의 이념에 따른 사회관계의 질적 재편성을

시현했으며, 다른 한편 자본제적 사회관계 및 축적매커니즘의 체제내적 '수정'을 불가피하게 강제했던 것이다. 예컨대 오늘날 선진자본주의의 소위 '복지국가' 현상은 세계 사회주의운동의 他者的 具現態의 하나인 것이다.

그러나 20세기말 사회주의 사상은 그것의 실패한 현실사회주의의 위기와 더불어 위기의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일찍이 헤겔은 思想을 '그의 時代가 思惟에 파악된 형태'라고 정의한 바 있다. 곧 현대사상의 거대한 조류를 이루고 있는 사회주의 사상의 위기는 우리 시대의 역사적 현실의 위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것은 단지 사회주의 진영의 위기만은 아니다. 우리는 역사발전의 창조적 과정을 제로섬(zero-sum)의 관계로 환원시켜 이해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의 실패 속에서 자본주의의 성공을 확인하면서 '역사의 증인'이니 '脫현대'를 운운하는 우리 시대의 사상적 부랑아들로부터 오히려 현대의 一般的 危機를 발견할 뿐이다.

위기의 시대는 '파괴와 창조'의 시대이다. 역사는 언제나 위기를 통하여 발전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思想이 잉태되고 탄생하였던 것이다. 우리 시대를 가리켜 위기의 시대라 한다면, 그것은 낡은 모든 것을 폐기하고 새로운 질

서의 창출에 이어지는 質的 移行期에 들어서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역사의 파괴와 창조의 과정에는 世界史的 勞苦와 苦惱가 따른다. 파우스트의 고뇌를 지拂하지 않고서 인류는 어떻게 자신의 청춘을 되찾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기에 우리 시대의 철학은 현대의 다양한 사상을 태동시켰던 18~9 세기의 철학이 지拂했던 노고와 고뇌 이상의 창조적 고통을 수반하지 않고서는 시대의 소명에 부응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때로는 시대적 현실의 명암을 반영하여 암울한 '知的 悲觀主義'의 색조를 띠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람시의 언명처럼 '意志의 樂觀主義'로서 회의와 좌절의 과도기를 건너가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知性的의 속성이며, 思想的의 辨證法的의 運動인 것이다.

이 글은 이상과 같은 세계사적 변화의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大學의 時代的 使命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기 위해 먼저 사상의 시대적 성격과 대학의 역할을 간략히 살펴 보고, 脫冷戰 시대의 세계정세와 한국의 위상을 논의한 후 한국사회의 과제와 대학의 임무를 지적해 보고자 한다.

2. 思想의 時代的 性格과 大學의 役割

사상은 일면 그것이 서 있는 역사적 현실에 의해 규정되면서, 다른 한편 새로운 전망의 제시를 통해 그 현실을 변혁시켜 가는 추동력으로서 기능해 왔다. 사상은 또한 시대적 현실의 변천 속에서 때로는 분기되고, 때로는 통합되면서 다양한 모습들로 자신을 구체화시켜 왔다.

사회가 급진적인 변혁의 운동에 들어섰을 때 기성질서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새로운 질서의 창출을 요구하는 진보적·혁명적 사상이 태동하여 위세를 떨쳤으며, 사회의 안정국면에서는 보수적인 사상이 출현하여—혹은 진보적 사상의 보수화를 통하여—이루어진 역사현실을 합리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프랑스 대혁명 이래 140 여년에 이르는 동안, 곧 1930년대까지 유럽을 비롯한 세계사의 선진지역은 경제적·정치적·지

적인 격동기에 놓여 있었다. 이 시기에 이들 사회는 물질적 생활의 재생산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놓은 생산방식의 심대한 변화·발전을 경험하였다. 그 결과 변화된 다양한 사회세력 간의 대립·갈등, 새로운 산업노동자계급의 등장과 성장, 그리고 이를 반영한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대 등 새로운 정치적 현실을 만들어냈다. 이처럼 밀물과 썰물이 급속히 교차하는 듯한 상황변화는 그에 따른 知的 對立과 새로운 思想의 모색을 끊임없이 창조적일 수 있게 해주는 원천이기도 했다. 단적으로 말해 시대가 겪었던 엄청난 격랑 속에서 사상은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는 활력을 얻으면서 그 시대가 제출한 과제를 풀어내려고 苦闘하였던 것이다. 이때 '巨大哲學'이 전일적이었던 것은 바로 시대의 요구 때문이었다.

특히 노동운동의 결정적인 성장에 맞추어 등장한 맑스주의의 哲學, 불세비키혁명에 의해 자본제의 모순과 폐해에 대한 실천적 대안으로 발전해 간 社會主義思想은 이 시기의 후반부를 거대철학의 깃발로 장식할 수 있게 만들었다.

다른 한편, 理性的의 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市場과 啓蒙의 '進歩性'을 전망하였던 自由主義思想은 사회 자체의 모순이 분석의 중심대상으로 떠오른 19세기 중엽 이래 자본제에 대한 辨護論, 즉 '矮小哲學'으로 변모했다. 물질적 풍요와 지식의 壘産이 인류를 최대행복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 功利主義 철학이 성장기 자본제의 낙관적 입장을 대변했다면, 이러한 전망의 파탄과 세계적 규모의 戰火를 반영한 비관적 입장이 그 이후의 사상적 조류를 이루었다.

자본제의 過熟期, 특히 사회주의의 대안이 현실로 확대되어 가던 시기에 이르러 이러한 사상적 경향은 심화되어 가는 자본제 사회의 위기, 세계적 규모로 발전하는 불평등의 확대와 그에 따른 갈등의 첨예화, 그리고 제국주의의 '실득될 수 없는' 反理性을 철학과 과학의 영역에서 은폐시키는 脫現代論(post-modernism)의 형식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展望不可性(neue Unübersichtlichkeit)'을 내걸고 현대 철학의 과제를 '부분의 추구', 회의와 歷史喪失로 대체해

버린 그것은 현대의 본질에 대한 총체성 탐구를 거부하고, 그 대신 사회의 한 기능으로 철학을 격하시키는 작업이다.

이처럼 巨大哲學으로서 形而上學이 현실을 개조하려는 唯物論的 實踐으로 나타났을 때, 사회에 대한 지엽적인 논의로 일관했던 자본제의 철학은 결국 論理實證主義의 허공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다른 한편 宿命論의 천박한 모조품인 構造主義 또한 자본제의 세련미를 갖추고 재등장했다. 巨大哲學의 非과학성을 주장하는 이러한 사상적 부류들이 인간해방이나 역사주체로서 노동계급의 존재를 거부하고, 진정한 사회과학적 관심은 일상의 술한 사소한 것들에 대한 이해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분명 哲學의 停滯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겠다.

다른 한편, 자본제사회와는 다른 이유로 中心部 사회주의사회에서도 思想은 경직된 관료제의 폐해에 의해 사회주의 본래의 철학이 지녔던 열정과 창의력을 소실하고 왜소화의 길을 밟게 되었다. 두 개의 세계체제가 장기적으로 공존하는 가운데 초기의 긴장과 열정이 체제 내의 안주와 기득권의 탐닉으로 변질되어 갔고, 양 진영 간의 사상적 대립은 본연의 성격을 상실한 체제 유지적 형식으로 대체되어 갔다.

이처럼 사회의 정체·보수화는 철학의 쇠미를 가져왔으며, 사회의 질보다는 量的 경제효율성에 의해 가치를 측정하는 脫휴머니즘의 도덕률을 일반화했던 것이다. 곧 모든 사상과 가치가 폐기되면서 사회의 發展은 단순한 量的 擴大로 환원되었다.

이러한 思想의 時代的 性格의 변천 속에서 大學의 役割은 무엇인가? 대학이란 한 사회의 모든 지식의 보고, 학문의 산실이다. 그것은 哲學을 붙들면서 '진정한' 大學으로 발전해 간다. 대학이란 한마디로 고뇌에 찬 理性的 꿈틀거림이다.

대학은 現實, 특히 기성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최종적으로는 그가 속한 사회의 성격에 좌우된다. 그것은 기성사회의 질서를 합리화하는 규범과 가치체계를 생산해내며, 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재생산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인을 산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이데

올로기적 국가기구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大學革命, 大學의 改革은 결국 그것에서 있는 사회가 얼마나 변혁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사회의 변혁 없이는 대학의 개혁은 결국 물거품이 되어 마침내는 특성의 성격을 고수하는 사회의 일부분으로서 기성사회의 재생산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은 또다른 現實, 만들어지고 있는 그리고 未來에 속하는 生成의 現實을 대변하기도 한다. 대학은 存在態에서는 기성사회의 일부이지만, 대학의 본질이 量的 存在가 아닌 質的 規定에서 찾아지는 한, 그것은 생성하고 있는 질서가 살아 숨쉬며 存在의 모습을 가지려고 꿈틀거리는 思想態인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해결은 '精神現象學'에서 國家를 絕對理性的 現存在로서 극찬하였던 바로 그 자리에서 대학에 의해 대변되는 思想의 自由는 이미 化石化되어 버린 현실, 소멸해 가는 기득권층의 이해를 목적으로 삼는 국가질서에 구속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곧 그는 사회의 발전, 進步의 思想을 전제할 때 오직 자유로운 思想의 活動만이 국가질서로 대변되는 절대이성의 끊임없는 발전 및 자기개조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결국 한 시대에 있어서 대학의 진보적 역할이란 자유로운 사상활동을 통하여 낡은 기성질서의 矛盾과 非合理性을 비판하고, 理性的 必然性에 따라 새로이 생성되어야 할 합리적 질서의 전망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3. 脫冷戰시대의 世界情勢와 韓國

앞서 간략히 살펴 보았듯이 소련 및 동구권의 블록체제와 더불어 진행된 탈냉전시대 세계체제의 구조적 세편과정은 선진자본주의 3대 중심(미국·일본·EC) 간의 정치·경제적 세력권 분할과 잠재적 대립·갈등의 격화를 수반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예측할 수 있는 가까운 장래에 파국적인 대립으로 귀결될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곧 그간에 진행되어 온 생산과 자본의 국제화 및 상호 의존·통제의 심화는 이들 간의 배타적 블록화에 반대되는 경향을 동시에 산출

했으며, 냉전체제 하에서의 反蘇·反共의 국제적 연대는 이들 간의 공조체제와 상호 자기조정 메커니즘을 일정한 수준으로 정착시켰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가까운 장래의 新국제질서는 ‘多者間의 自由貿易’이라는 단일세계경제체제의 기본틀 안에서의 非배타적인 지역경제권으로의 부분적 분화의 형태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이념적 투항과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로의 편입은 國際資本 활동공간의 의연적 확대를 가져다 주었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 사상과 운동의 잠정적인 퇴조와 잠복을 초래함으로써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내부적 위기와 정치적 모순의 일시적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로써 市場과 理念의 全地球的 統合이 현상적으로나마 완성된다.

문제는 이와 같은 세계정세의 변화를 한국사회의 발전전망과 관련하여 분석하고, 그 의미를 구체화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다. 먼저 이념의 전 지구적 통합이 함축하는 바를 살펴 보자.

현실사회주의의 위협이 제거되고 이들 블록이 개방됨에 따라 이제 자본제는 체제내적 위협과 모순을 완화하고자, 자신의 선호와 관계없이 사회주의사상의 합리적 내용을 수용·접합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사회주의권 역시 자본제가 지닌 自由主義와 合理主義의 긍정적 유산을 자기의 사내에서 재평가하고 계승해야 하는 문제를 안게 되었다. 곧 체제의 요구와 관료제적 순응에 의해 固着化·化石化된 양 진영의 思想운동은 이제 범위의 다양화와 全方位에 걸친 社會主義·自由主義의 상호침투·상호영향 및 융화의 현상을 불가피하게 수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상호 흡수·통합의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폐기되고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지양 속에서 서로를 포괄하는 思想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현실사회주의의 몰락은 오히려 사회주의 이념의 현주소가 위기의 상태에 있음을 깨우쳐 주었으며, 양분된 세계에서 정체되어 온 思想에 새로운 창조력을 부여하는 충전의 계기로서 작용하였다. 결국 이는 世界史와 思想史의 진진이 단선적인 것이 아니라 迂迴路의이며 辨證法의인 상호작용의 결실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세계적 차원에서의 이념의 상호침투·자기수정의 과정은 한국사회에 대해서도 이념의 脫경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돌이켜 보건대 분단국가로서 한국의 국가형성 자체가 냉전적 세계 정치·군사 체제의 구조적 압력 아래 진행되었고, 그 결과 반공·안보지향의 강력한 권위주의적 국가가 발전하게 되었다. 사회발전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思想의 자유로운 活動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기본영역마저 反共의 절대명제 하에서 유보되거나 거부되어 왔던 것이 우리의 역사현실이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그간의 경제성장과 세계적 변화의 추세에 걸맞지 않는 문화적·정치적 후진성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역대정권의 反共獨裁와 對美從屬은 이 나라 민족·민주운동의 급진화와 경직화를 강요하는 상황적 요인을 구성하였다. 이념의 다원적 수용과 비판의 활성화를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권위주의적 통제와 억압, 체제내적 경쟁을 통한 정치권력에의 접근과 정치발전에 대한 기대를 원칙적으로 좌절시킨 군부의 超헌법적 정치개입,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거의 절대적이다시피한 정부의 대미예속성, 민중부문의 철저한 배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경유착과 정부의 제벌 비호 등은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민족주의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오직 체제의외적 접근 방식밖에 없다는 절박한 인식을 민족·민주운동 세력에게 각인하였다고 평가된다. 그것은 反파쇼 民主化·反美 自主化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운동세력 역시 인식과 사고의 경직화로 인하여 급변하고 있는 세계정세의 흐름에 대해 ‘의식의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보다 유연하고 생동감 있는 적응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시대는 도덕적 의분이나 이념적 신념에 따른 견결한 실천 못지 않게 그것의 科學化, 곧 ‘구체적 상황의 구체적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겸비한 大衆의 實踐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사회주의권을 포섭한 단일세계경제체제의 출현과 非배타적인 지역경제권으로의 분화경향은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의 폐기와 신중상주의적 국가간 경쟁을 강화하고 있다. 일부 국제정치학자들이 강조하고 있듯이 세계적 규모에서의

상호의존 확대·심화와 초국가적 행위자들의 활동 증대는 일부 지역에서 주권국가의 경계선을 희미하게 하는 경향을 유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세계는 아직까지 국민국가적 단위에서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자본의 국제화 경향과는 달리 노동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은 아직까지 비현실적이며, 민족 간의 불평등 심화와 제국주의적 착취와 간섭이 지속되고 있는 세계사의 현상은 직접생산자의 해방과 보편적 휴머니즘의 실현이 일단 국민국가 단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국가를 수단으로 하여 발전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는 한 민족주의적 감정과 주권국가의 장벽은 상당 기간 지속될 뿐만 아니라 더욱 강화될 경향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세계사적 현실의 추세는 한국의 '국가'로 하여금 對外的 自律性을 더욱 제고할 것을 요구한다. 그간 한국의 국가는 국내적 영역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누리며 군림해 왔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외적 영역에서는 군사·안보적 차원, 나아가 정권유지적 차원에서 대외예속성을 심각하게 노정시켜 왔다. 그러나 脫냉전기의 세계정세는 더이상 그러한 대외예속성이 민족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지배계급의 이해에도 맞지 않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예고한다.

한 국가의 자율성은 그 국가의 자원추출 능력과 행정적·강제적 통제력에서 주어질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 국민적 참여와 요구를 수렴해 내는 '정통성'의 수준에 의해 가늠될 수 있다. 곧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정통성' 있는 국가는 단지 행정적·강제적 통제력에만 의존하는 권위주의국가보다 더 큰 자율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脫종속을 지향하며 경쟁적인 세계국가체제 속에서 민족적 번영과 생존을 추구해야 하는 한국의 국가는 자신의 正統性 기반을 民衆部門과의 연대를 통해 더욱 확대하고 공고히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국가는 사회기득권층의 보수적 이해의 장벽을 깨고 과감한 社會經濟的 改革을 단행하여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치적 안정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더욱 제고된 대외 협상능력으로써 일방

적인 대외예속으로부터 탈피하여 民族의 독자적 이해를 自主적으로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4. 韓國社會의 課題와 大學의 任務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오늘날 한국사회는 격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게 되었다.

첫째, 政治的 民主主義의 실현을 통해 지난날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남긴 否定的 遺産, 즉 민중의 실질적 정치참여의 배제로 인한 정통성 부재와 정치적 불안정, 권력에 대한 견제와 통제 장치의 부재로 인한 국가기구의 부패와 비효율적인 비대화, 인권유린과 反사회적 권력형 부조리의 폐해 등을 청산하고 민주적 정치발전의 制度的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經濟的 民主主義의 실현을 통해 사회복지와 분배정의를 구현하고, 경제의 비효율적·기생적 타성을 제거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대외경쟁력 약화의 원인을 높은 임금수준과 노동부문의 활성화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생산적 투자의 감소와 기술생산성의 상대적 저하는 한국자본의 기생성과 反사회적 속성으로부터 유래한다. 오히려 경제의 민주화는 장기적으로 자본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생산성의 제고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만 한다.

셋째,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구조를 청산하고 平和體制로의 전환을 실현하여 民族統一의 기초를 마련하는 일이다. 이러한 분단상황의 지양을 통해서만 우리 민족은 명실상부한 自主的 民族國家의 완성에 이를 수 있다. 이는 한국사회의 경제적·정치적 민주화 및 脫종속의 완결조건에 해당한다.

이상과 같은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나라 대학의 時代的 使命과 任務은 무엇인가? 필자는 앞서 대학의 기능은 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인의 산출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나아가 대학은 思想의 자유로운 活動을 통하여 기성 질서의 非합리성을 비판하고, 생성될 現實의 질서를 전망하여 이를 향한 실천의 원동력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언명하였다.

한국사회는 역사적 격변기에 놓여 있다. 그것이 안고 있는 時代的 課題는 기성질서의 원활한 재생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反이성적·反민족적 측면의 혁파에 있다. 따라서 우리 대학의 역할은 단순히 기성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보수적 지식과 기능인의 양산에 있다기보다는 歷史의 進步的 課題를 실천할 비판적·미래지향적·진취적 지식인과 思想의 산출에 있다고 하겠다.

그간 우리나라 대학은 反시대적 專制權力에 대항하여 꾸준히 비판적 이성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세계정세의 격동 속에서 일고 있는 思想의 無政府主義, 가치의 虛無主義·冷笑主義는 우리의 진보에의 신념과 비판적 이성을 마비시킬지도 모르는 위협적인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우리나라 대학은 권위

주의 정치체제가 강요한 이념의 편협성과 경직성을 극복하는 한편, 思想의 辨證法의 高揚과 運動 속에서 역사적 해안으로 새로운 내용을 붙들어야 할 것이다.

이때 우리의 대학은 일시적인 사상의 혼란을 극복하고, 다가올 통일시대의 민주사회 건설에 필요한 진보적 지식인과 지식을 산출하는 變革期 사회의 대학이 담당해야 할 시대적 역할을 유감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大學은 그 民族의 것이다. 分斷의 비극을 지구상에서 마지막까지 안고 있는 우리 사회는 아마도 思想을 위하여 대학을 最適의 産室로 만들어 놓고 있다. 비극의 환경을 發展의 계기로 불드는 작업, 그것이 오늘 우리 대학에 주어진 이 시대의 世界史的 課題일지도 모른다. ▣